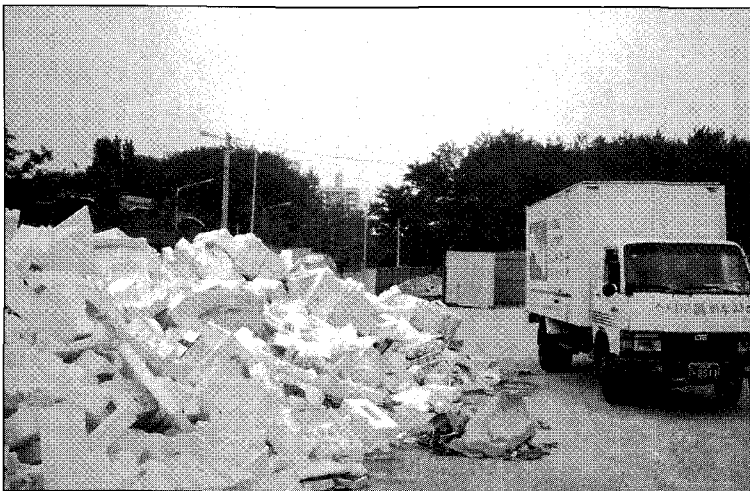


커버스토리

경남, 군 지역까지 분리수거 확대 실시

- 10월부터, 주민불편·수수료부담 동시에 해소



경상남도는 당초 '97년 1월부터 군 지역에 실시기로 한 스티로폼 분리수거를 2개월 앞당겨 금년 10월부터 도내 10개 군 전체에 전면 실시키로 했다.

경상남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3월부터 실시된 11개 시 지역에서의 분리수거 실시 결과, 쓰레기 감량 효과 및 주민의 종량제 봉투 사용에 따른 수수료 경감과 불편이 해소되어 이러한 혜택을 도내 군 지역 주민에게도 조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 따라서 경상남도는 분리수거된 스티로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용기를 9월 이전에 설치하기로 하였는데, 이미 6개 군은 설치되었으며 나머지 4개 군도 설치 중에 있다. 또한 올바른 스티로폼 분리수거제도의 정

착을 위해 주민들에게 분리 배출 요령이 담긴 홍보 영화를 유선 방송 및 반상회에서 방영하거나 군정 소식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사전 주민 계몽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.

지난 3월 1일부터 분리수거가 실시된 경상남도의 11개 시 이상 지역에서 수거된 스티로폼의 양은 월 평균 7,959kg으로 지난 8월 15일까지 총 35,848kg 수거되었다. 이 중 자체 감용은 27,648kg이었고 7,900kg은 재생 업체에게 위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.(표1)

(표1) 페스티로폼 수거·처리 현황 단위:kg

수거량	월평균 수거량	처 리 량			보관량
		소계	자체감용	재생업체 위탁	
35,848	7,959	35,548	27,648	7,900	23,698

한편 페스티로폼 분리수거가 실시된 이후 부산·경남지역 페스티로폼 수거량은 약 86톤으로 이 중 34톤은 재생 업체에 위탁 처리 또는 감용하여 판매되었으나, 나머지 52톤은 대부분 잉고트 상태로 보관하고 있어 잉고트 판매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.

이와 함께 경상남도는 가전사, 가전 대리점 및 대형 백화점, 유통 업체, 농수산시장, 전자상가 등에서 나오는 페스티로폼은 발생업체가 자체적으로 감용해 재생 업체와 연계, 위탁 처리키로 했다.